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64. 남은 자손과 예수의 증거(2)

2014. 03. 2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나누지 못한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를 규정지은 계시의 말씀의 두 번째 조건이었지요. 오늘은 결론적인 사실을 살펴보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등불이 꺼져갈 때 다른 그릇에 담은 기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표상하는 것임을 교인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담은 그릇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시간이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답: 지난 시간에 유의해서 들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역사한다면 그것은 가짜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영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13~15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전에 읽었는데, 또 한 번 확인하면 좋겠습니까?(예, 읽도록 하지요.)

[요16:13~15]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를 지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일곱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붙은 횃불같이 타는 별로 세상으로 쫓겨 온 루시퍼가 교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영으로 역사하여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고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며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그릇된 주장과 사상이 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되

어서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역사적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시며 오래 기다리신 것이지요. 그러다가 계몽운동이 번지면서 서민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기록된 책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봉함된 다니엘서를 열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도 당시에 신학에 젖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예언자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를 통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증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12:13~16에 예언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는 때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따르는 무리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정립이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곧 십계명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예수의 증거를 주셔서 성령의 지도를 바르게 따르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2. 지금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 같은데요, 기름이 담긴 등 말고 다른 그릇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답: 예, 제가 지금 반복하는 것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증거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요6:63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봅시다.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영이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학문이나, 성경의 기록과 다른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을 안경으로 쓰고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바른 증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역사적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진리를 성경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지도를 분명하게 나타낼 것인데 그것이 다시 예언하는 일입니다. 이 예언은 성령께서 신학이나 교회의 전통과 상관없이 오직 기록된 성경말씀을 성경말씀대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언자로 부르신 사람에게 영감과 계시로 가르쳐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 다른 그릇입니다. 등은 성경이고, 등 말고 다른 그릇에 담은 그릇은 그 그릇 안에서는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등에 부어야 비로소 등에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릇은 그 안에 기름이 있다고 해도 그 그릇과 기름으로는 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등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그릇에 담긴 기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3. 예, 목사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언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증언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지요?(예, 그렇습니다.) 그 그릇에 담긴 성령께서 주신

증언을 성경에 붙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그릇이 성령께서 말세에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증언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이고요?(예)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언자가 엘렌 화이트이고요. 그가 증언을 위하여 쓴 책이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책이 바로 예언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씀이네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증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계시록을 겸손하게 성령께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 설명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지요. 그 예언이 오순절 때에 일 차 성취된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순절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먼저 요엘서의 기록을 한 번 읽어봅시다.

[욥2:28~32]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모인 군중들에게 인용하였습니다. 읽어봅시다.

[행2:16~22]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 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현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인데 그것은 음력으로 14일입니다. 그 밤은 보름입니다. 기록에 없으니까 모르지만, 낮에 해가 캄캄해졌으니까 아마 밤에 달빛이 제대로 밝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한 것은 심판을 말할 때 표현하는 구약 용어이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심판을 나타냅니다. 아무튼 요엘의 이 예언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 후에 또 성령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요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임함이라고 했습니다.

[욘2: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령의 역사를 비가 내리는 것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물론 메뚜기 재앙 뒤에 이스라엘의 농사가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못지않은 큰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늦은 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교회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순절 때에도 교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개인은 교회에 속한 개인입니다. 교회와 동떨어진 개인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역사를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4.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 성경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12장과 고전 12~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있지요. 이 모든 은사들을 세어보면 28가지 이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전 1:5~7을 읽어봅시다.

[고전1:5~7]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에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 교회에는 예언자의 은사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시록 10장 사건이 있는 후에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하셨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주어질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은사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요. 예언은 특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은 오성설교라고 주장합니다. 오성설교라는 말은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설교라는 뜻입니다. 깨달을 悟, 성품 性 說敎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다시 예언하는 것은 오성설교보다 진짜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5. 그러면 근대에 와서 다른 교단에서는 예언자가 없습니까?

답: 교회가 개혁의 선구자들을 예언자적인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이 보여주는 예언자적 은사와는 좀 다르지요. 예언자라고 하면 좀 문화적 표현이고요,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말로하면 선지자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라고 하셔서 꿈이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도록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10:11에 말하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한 그 예언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때가 봉함된 다니엘서가 깨달아진 역사적 시점이 있으니까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예언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사가 없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조직 안에서는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요.

6. 속칭 물몬교라고 하는 교단에도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요?

답: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 씨를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일부일처를 가르칩니다.

[말2:15] 여호와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구약성경에 왕들이나 족장들이 일부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일부다처는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원리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주장들에 대한 대답도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봅시다.

[마19:3~8]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부다처도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문화가 일부다처라서 온 사회가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다처를 묵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조셉 스미스 씨는 일부다처를 주장했고 실제로 자기는 1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본 계시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이겠지요. 그런 계시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미로 다른 교단에는 말세에 선지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단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될 때 은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안에 견고하게 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예수의 증거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고전1:6에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고 계12:17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에 그 여자, 곧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상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교회의 후예들, 남은 자손들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끝을 맺습니다.

7. 그러니까 용, 곧 사단이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오직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만이라는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사단의 사상을 성경의 하나님의 사상인 것처럼 믿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영혼불멸설이나 영원한 지옥, 또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로 다 폐지했다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제1일을 주일이라고 주장하고 예배하는 것 등등. 이것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마귀의 주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한 그 나무 과실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장담했는데,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고 마귀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속히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문화와 신학과 교리가 거기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뱀이 말한 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정통이라고 하고요. 그런 가르침은 모두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여자에게 거짓말한 그것을 참말로 믿고 받아들이는 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8. 정말로 두려운 일이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깨닫도록 전해야 하나요?

답: 그 일을 남은 자손들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워낙 그릇된 신앙사상에 굳게 서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받고 있으니까요. 교인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가장 겁내지요. 그들은 이단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왜 이단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일단 멀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묘한 현상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롬9:27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9. 시간이 그렇게 되었군요.

[롬9:27,28]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답: 이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예언할 종을 보내시고 말씀의 기갈이 심할 때에 올바르게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받고 깨달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되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에 힘 있게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